

도심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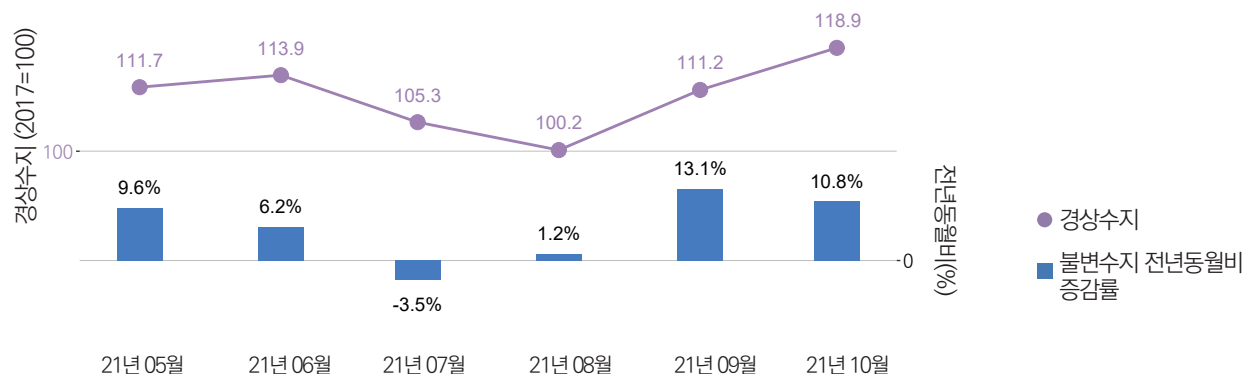
•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10.8% 상승. 도심권 소비경기는 9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가장 양호

- 전년동월대비 +10.8% = 소매업의 기여도 +5.0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5.8%p
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지수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※ 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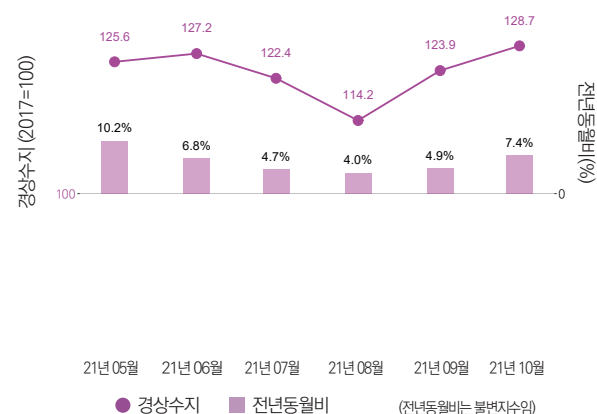
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7.4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18.0% 상승

- 도심권은 기타가정용품(41.2%), 가전제품·정보통신(24.9%), 음식료품(14.1%), 종합소매(6.4%) 등 소매업 일부 세부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도심권 소매업 경기지수는 (전월에 이어) 증가세를 유지
 - 10월 도심권 소매업은 기타가정용품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음식료품, 기타상품, 종합소매, 문화·오락·여가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
 - 반면 연료만 소비부진
-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(69.3%), 주점·커피전문점(7.7%), 음식점(3.3%) 등 세부 업종 모두 상승하면서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 경기지수는 (전월에 이어) 증가세를 유지. 10월 도심권은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숙박·음식점업 경기지수가 상승
 - 10월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, 주점·커피전문점, 음식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

| 도심권 소비경기지수



| 도심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|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